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가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The Influence of the Need for Peer Approval upon Levels of Children's Dep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 Self-esteem as a Mediator\*

김지형(Ji Hyoung Kim)<sup>1)</sup>

박경자(Kyung Ja Park)<sup>2)</sup>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hildren's self-esteem has a mediating effect upon the need for peer approval in terms of both dep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93 5th grad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hildren filled out questionnaires on the need for peer approval, self-esteem and depression. Teachers were asked to rate the levels of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ur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mediated effects of the need for peer approvals on children's depression. Children who sought positive approval from peers had higher self-esteem, which in turn lowered the level of children's depression. Children who avoided negative approval from peers had lower self-esteem,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children's depression. However, self-esteem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upon the need for peer approval in term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ey Words** : 또래 인정욕구(need for peer approval), 자아존중감(self-esteem), 우울 (depression),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출생하면서부터 주양육자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자아에 대한 표상과 자기체제도 각 발달시기의 특정한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관

\* 본 논문은 2009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sup>1)</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sup>2)</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 H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glqkq79@naver.com

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자아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역동적이고 반응적인 실체이기 때문이다(Baumeister & Vohs, 2004). James, Mead 등 초기 발달이론가들은 자아 개념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Rudolph, Caldwell, & Conley, 2005). Cooley는 타인의 평가가 사회적 거울로 작용하여 아동은 이에 기초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면경자아(looking-glass self) 이론을 주장하였다(Harter, Waters, & Whitesell, 1998).

자아존중감은 항상적 측면으로서의 특질적인 자존감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상태적인 자존감의 두 가지 상태로 나뉘지는데(Leary & Downs, 1995; Demo & Savin-Williams, 1992; Harter et al., 1996; Kernis, 1993),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친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또래 관계에서의 수용과 거절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변화가 생긴다(Harter, 1990a; Leahy & Shirk, 1985; Rosenberg, 1986). 또래로부터의 인정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Brown, 1990; Savin-Williams & Berndt, 1990; Harter & Jackson, 1993, 재인용), 선행 연구에서 경로분석을 통해 또래 인정이 자존감 수준의 예언인자로 나타났으며(Harter, 1986; Harter, Marold, & Whitesell, 1992),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은 아동은 높은 자존감을 보이고, 인정을 받지 못한 아동은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Harter et al., 1996).

건강한 발달 경로를 따르는 아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다양한 특성을 하나로 통합해 인식하는 인지발달의 진전과 함께, 또래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면서 일관적이고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킨다(Harter, 1998).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아동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몰두하게 된다. 이는 면경자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Harter et al., 1996), 또래 인정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아동들은 또래로부터의 불인정을 전반적 자기 평가로 일반화해 낮은 자존감을 보이게 된다.

이제까지 또래 인정욕구는 단일차원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동기적 속성을 고려하여(Strauman & Higgins, 1993),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를 접근과 회피 동기에 따라 '또래 인정'과 '또래 불인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인정에 대한 높은 욕구는 긍정적인 판단을 얻기 위한 접근 동기와 부정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에 의해서 추구된다(Rudolph et al., 2005). 접근 동기는 긍정적인 혹은 바람직한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반면 회피 동기는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사건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는 정서와 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Elliot, 1999; Elliot & Thrash, 2002).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한 동기는 향상된 자아존중감(사회적 인정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느끼는 것)으로 반영되고, 불인정을 피하기 위한 동기는 낮은 자아존중감(사회적 불인정에 따라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반영된다(Rudolph et al., 2005).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우울, 불안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 등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ash & Wolfe, 2001).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아의 내적 실행 모델에서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학적 매개변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Harter, 2005). 선행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우울, 불안 수준이 낮고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onger et al., 1993; Leung & Lau, 1989). 최근 아동의 정서 문제 중 우울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기에 시작된 우울이 성인기 우울에 비해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고(Kovacs, Gastonis, Paulauska, & Richard, 1989), 다른 정신과 장애군에 못지않은 부정적인 예후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Kovacs & Goldston, 1991). 부정적 자기 평가는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Stark, 2002/1990), 우울을 겪는 아동의 95% 이상이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tchell, McCauley, Burke, & Moss, 1988). 이는 낮은 자존감은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되는 반면 높은 자존감은 스트레스나 외상을 주는 상황에서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Roberts & Monroe, 1992).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는 또래 인정욕구의 두 가지 차원인 또래인정 추구하고 또래 불인정 회피에 따라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래로부터의 불인정을 피하는 것이 목표인 아동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데 관심을 두는데 이러한 자기 무시는 정서적 문제를 이끈다(Fritz & Helgeson, 1998). 반면 또래로부터의 인정은 자기 향상 전략을 강화시켜 부정적 사회정보를 무시하고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향상의 근원을 긍정적인 피드백에 기반을 둔 사람은 자기 의심과 걱정, 낙담, 무기력감을 덜 겪었고, 또래 인정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회상을 축소시키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Rudolph et al., 2005). 즉 또래 인정을 추구하는 아동들은 부정적 피드백에 맞서 그들의 자기가치와 정서적 행복감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자존감은 사회적 유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령기는 또래를 비롯하여 타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유능성은 건강한 적응의 기초가 된

다. Rosenberg(1965)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고,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반면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표현 능력, 자기 확신, 인내, 사회적 기술, 실용적 지식의 수준이 높았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본 국내 연구들에서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 1999; 김희화, 1998; 이숙희, 2007).

최근에는 높은 자존감의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발달의 대가적 측면을 주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나 직업적 성공 등 객관적인 결과의 강력한 예언 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Baumeister, Campbell, Kreuger, & Vohs, 2003)와 높은 자존감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미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Tennen & Affleck, 1993, Kernis, 2005, 재인용). 따라서 연구자들은 안정된 높은 자존감과 불안정한 높은 자존감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Harter, 2005).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아동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화, 적대감 등의 공격성을 나타내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비판하거나 위협하는 사람과 부딪치는 경향을 보였다(Baumeister, 1998).

아동의 자존감 수준 뿐 아니라 또래 인정욕구는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래 인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또래 인정이란 긍정적 피드백을 최대화하는 접근 동기가 활성화돼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Rudolph, et al., 2005). 또한 또래 인정 추구는 아동이 사회적 단서를 정확히 해석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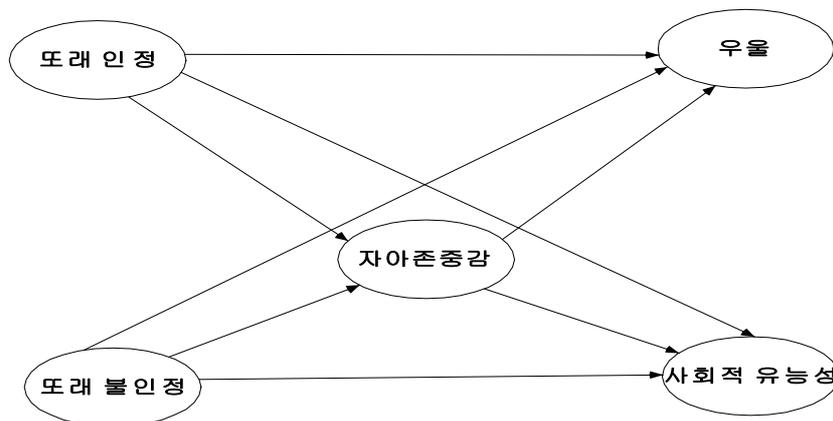
함으로써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비해 또래 불인정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또래관계가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친구와의 갈등은 학업 능력 및 행동과 관련된 자아지각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Berndt, 1996; 임은정, 2005, 재인용), 학교 적응과 학습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반면 또래 불인정에 대한 민감성은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이들에게는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관계회복을 위해 협동,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Rudolph et al., 2005).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또래 인정 욕구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정서문제, 적응 등 결과 요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이를 또래 인정 욕구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또래 인정욕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일차원으로 연구되었으나, 회피 또는 추구 동기에 따라 자기

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 인정 욕구의 두 차원인 ‘또래인정’(또래 인정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또래 불인정’(또래 불인정에 민감한 정도)이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그러한 과정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를 겪는 아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한 아동들이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고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과정에서 인과관계나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1> 또래 인정욕구(또래 인정과 또래 불인정)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또래 인정욕구(또래 인정과 또래 불인정)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5학년 아동 393명으로, 남아 212명(53.9%)과 여아 181명(46.1%)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에 자신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관심이 뚜렷해지고 인지 능력의 발달로 우울과 자아존중감, 신체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등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을 형성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Harter, 1990b; Rosenberg, 1986). 또한 학령 후기에는 인지적 요소가 동반된 우울의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하며(Wicks-Nelson & Israel, 2001/2000), 비교적 정확하고 안정되게 자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Harter, 1982), 질문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2. 연구 도구

#### 1) 또래 인정욕구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Rudolph, Caldwell과 Conley(2005)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The Need For Approval Questionnaire (NAQ)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우리나라 아동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또래 인정척도의 하위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각 문항이 완전히 독립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Oblimin 방식으로 사각 회전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고유치와 문항성격에 근거하여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는 원도구에 근거하여 친구

들의 인정에 기초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인 ‘또래 인정’(예 :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 할 때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과 친구들의 불인정에 기초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인 ‘또래 불인정’(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 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Rudolph와 그의 동료들(2005)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긍정과 부정의 하위 척도는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원 척도에서는 ‘보통이다(3점)’을 포함하는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응답을 회피하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래인정욕구 중 또래 인정의 Cronbach’s  $\alpha$ 는 .85, 또래 불인정은 .78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에 기초해 이은혜 · 신숙재와 송영주(1992)가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표준화한 자아지각척도의 하위 영역 중 전반적 자기가치감으로 측정하였다. 전반적 자기가치감은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6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의미가 중복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총 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Kovacs(1983)

가 7~17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자살 문항을 제외한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은 우울 증상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2점으로 응답하였고, 총점은 0~5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 는 .84였다.

#### 4)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측정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Hightower와 그의 동료들(1986)이 개발한 교사용-아동 평정척도(Teacher-Child Rating Scale : TCRS)를 정현희(2002)가 번안하여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교사용-아동 평정 척도' 중 사회적 유능성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는 20문항은 좌절 인내, 자기 주장적 사회적 기술, 과제지향, 또래관계 기술의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사는 아동이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유능성의 가능한 총 점수는 20~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능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 앞서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와 자아존중감, 우울 질문지 문항의 이해 정도 및 적절성 여부,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2008년

6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의 아동 3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질문지에서는 일부 문항(아동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문)의 구분에 어려움을 표하는 아동들이 있어, 총 여섯 문항 중 두 문항은 제거한 후 아동학 전문가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15~20분가량이 소요되어 아동에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8년 7월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두 개 초등학교 5학년 13개 학급의 아동 402명과 그들의 담임교사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용 질문지는 본 연구자와 두 명의 연구보조자가 해당 학급에 한 명씩 들어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실시하였는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급별로 15~20분 정도였다. 담임교사에게는 아동 평가를 전달하여 작성요령과 유의점을 설명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연구자에게 회송할 것을 부탁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총 402부 배포되었으며 회수율은 100%이었다. 이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393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변인 별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는데,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적합도 지수 중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chi^2/df$  비율(Q값)을 이용한 표준 카이 자승치를

사용하였다. Q값은 5 이하면 바람직하다고 보며 (Tanaka, 1987), 2~3 이하이면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여겨진다(조선배, 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 Analysis)<sup>1)</sup>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사용되는 Z검정에 비해 덜 편향된 표준오차를 구해주고 정상성을 가정하지 않은 자료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hrout & Bolger, 2002).

분석에 앞서, 정규분포가정이 심하게 위배된 경우, 최대 우도법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측정 변인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 > 2; 첨도 > 7의 경우는 심한 비정규분포)에 의하면,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왜도 : -.71 ~ .90, 첨도 : 2.32 ~ 3.24).

### III 연구 결과

####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에 따른 차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 하위 영역의 문항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또래 인정이 2.65점으로 4점 척도 중 중간 이상의 점수이고, 또래 불인정은 1.67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아동들은 또래 불인정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또래 인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또래 인정( $t=-3.51, p<.01$ )과 또래 불인정( $t=-2.28, p<.05$ )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의 인정과 불인정에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 점수는 3.0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3점인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보고한 우울의 총점 평균은 가능한 점수 범위 0~52점에서 12.85점이었다. 이는 중간보다 낮은 점수로 연구 대상 아동의 우울수준이 대체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총점의 평균은 64.56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 20~100점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하위 영역별로도 모든 영역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교사에 의해 높게 평가되었다. 사회적 유능성의 문항 평균 점수는 남아가 3.08, 여아가 3.40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높았으며,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t=-4.63, p<.001$ ).

#####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 측정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아동의 또래 인정과 또래 불인정,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요인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제시함에 있어서 아동의 성을 통제된 부분상관계

1) 표본 자료로부터 표본 자료  $n$ 과 동일한 수의 표본 자료  $k$ 개를 추출, 반복추정을 통해 정상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험적 분포를 생성해서 표준오차를 계산해 주는 방법(홍세희, 2008).

&lt;표 1&gt; 측정 변인들의 문항 평균, 표준편차와 성에 따른 차이 검증

		남아 (N=212)	여아 (N=181)	전체 (N=393)	t
		M (SD)	M (SD)	M (SD)	
또래 인정욕구	또래 인정	2.53 (0.76)	2.80 (0.77)	2.65 (0.77)	-3.51**
	또래 불인정	1.60 (0.64)	1.75 (0.44)	1.67 (0.65)	-2.28*
자아존중감		3.00 (0.75)	3.14 (0.78)	3.07 (0.77)	-1.80
우울	우울	0.52 (0.25)	0.47 (0.27)	0.49 (0.26)	1.81
좌절 인내		3.06 (0.70)	3.47 (0.63)	3.25 (0.70)	-5.98***
자기 주장적 사회적 기술		2.96 (0.91)	3.14 (0.87)	3.05 (0.90)	-1.90
사회적 유능성	과제 지향	3.10 (0.95)	3.58 (0.85)	3.33 (0.94)	-5.23***
	또래 관계	3.18 (0.87)	3.42 (0.72)	3.29 (0.81)	-3.01**
총 점		3.08 (0.72)	3.40 (0.66)	3.23 (0.71)	-4.63***

\*\*\* $p < .001$  \*\* $p < .01$  \* $p < .05$ 

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의 또래 인정은 또래 불인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8, p < .001$ ). 이는 또래 인정을 추구하는 아동은 또래 불인정에도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인은 본 연구 모형의 독립잠재변인이므로 구조모델 검증 시 이 두 변인간의 상관을 가정하였다. 또한 또래 인정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 $r = .26, p < .001$ ), 우울과는 부적 상관( $r = -.19, p < .001$ ), 사회적 유능성 총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9, p < .001$ ). 아동의 또래 불인정은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r = -.13, p < .05$ )을 보인 반면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7,$

$p < .01$ ). 사회적 유능성 총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즉 또래 불인정에 민감한 정도는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r = -.56, p < .001$ )을 보인 반면 사회적 유능성 총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20, p < .001$ ). 아동의 우울은 사회적 유능성 총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r = -.37, p < .001$ ), 유능성의 모든 하위 영역들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34 \sim -.28$ ). 구조모형에서 종속 잠재변인인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상관을 보여 구조모델 검증에서 두 이론 변인 간 오차 상관을 가정하였다.

요약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의

<표 2> 측정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계수 (N=393)

		1	2	3	4	5	6	7	8	9
또래 인정욕구	1. 또래 인정	1.00								
	2. 또래 불인정	.38***	1.00							
	3. 자아존중감	.26***	-.13*	1.00						
	4. 우울	-.19***	.17**	-.56***	1.00					
사회적 유능성	5. 좌절인내	.10	-.05	.14**	-.28***	1.00				
	6. 자기주장기술	.17**	-.09	.22***	-.31***	.56***	1.00			
	7. 또래관계	.21***	-.04	.19***	-.33***	.62***	.64***	1.00		
	8. 과제지향	.17**	-.03	.13*	-.34***	.71***	.62***	.61***	1.00	
	9. 총점	.19***	-.07	.20***	-.37***	.83***	.84***	.84***	.87***	1.00

\*\*\* $p < .001$  \*\* $p < .01$  \* $p < .05$

주요 변인들인 또래 인정욕구, 우울, 사회적 유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또래 인정과 불인정, 우울,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모형의 탐색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2. 측정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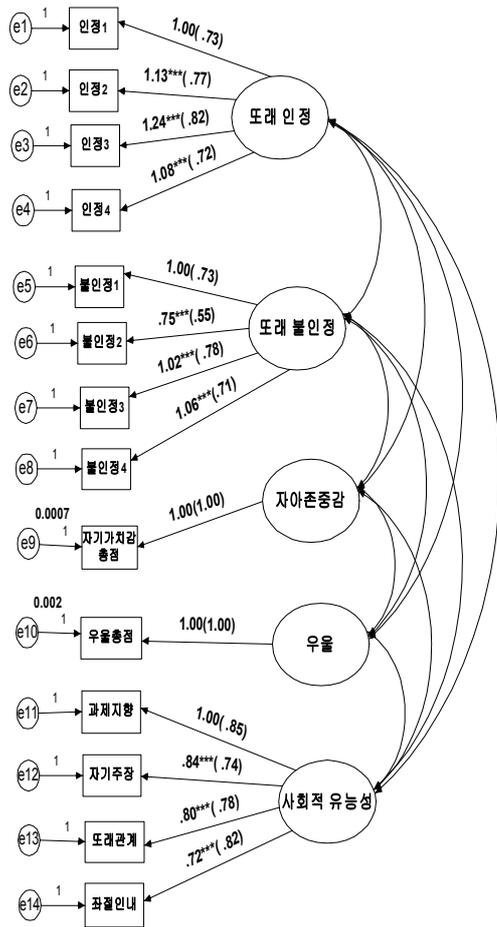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아동의 또래 인정과 불인정,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유능성의 다섯 개의 이론 변인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또래 인정과 불인정을 측정하는 8개의 측정변수,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예측하는 각각 1개의 측정변수,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4개의 측정변인들이 측정모형에 포함되었다. 이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하나의 측정 변수가 사용된 이론 변수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이용해 측정오차의 값을 각각 0.0007과 0.002로 고정하였다<sup>2)</sup>. 그 결과, 각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p < .001$ 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그림 2> 참조). 적합도 지수는 CFI=.977 TLI=.970, RMSEA=.043,  $\chi^2/df=1.73$ 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권장되는 임계치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자가 설정한 측정구조를 본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 3.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또래 인정과 불인정이 아동의 우울,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된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77, TLI=.970,  $\chi^2/df=1.73$ , RMSEA=.043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3> 참조).

2) 이론변수 당 하나의 측정변수가 사용된 경우 측정 오차의 경험적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 측정오차의 값은  $[(1-\text{측정변수의 신뢰도}) \times \text{측정변수의 분산}]$ 의 공식으로 구한다(이기중, 2000).



주. 괄호 밖의 값은 비표준화 계수이며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임.

e1 ~ e14 : 오차항, \*\*\* $p < .001$

<그림 2> 측정 모형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모수추정치

#### 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검증된 구조모형에 기초해, 또래 인정과 불인정이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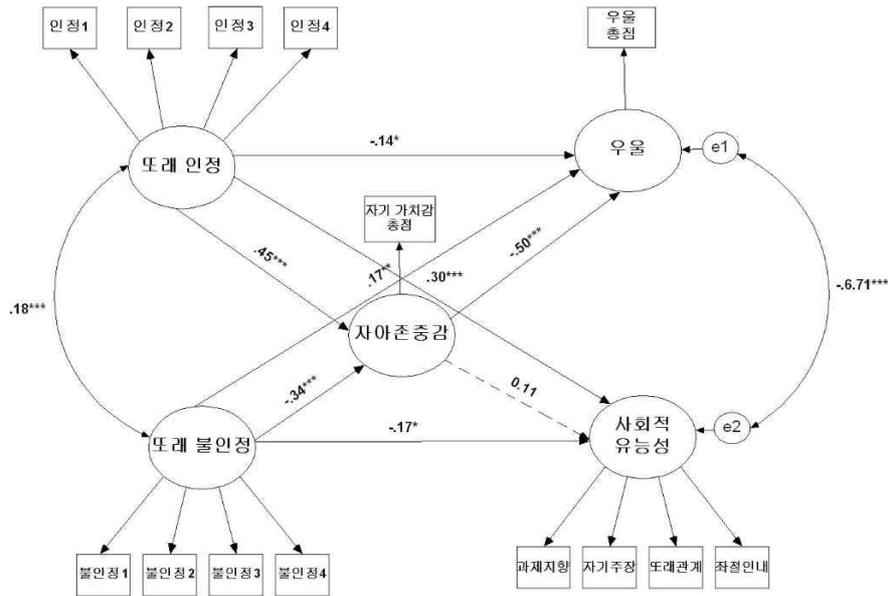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또래 인정과 불인정이 아동의 우울감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인정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신뢰구간이 -3.36 ~ -1.6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또래의 인정에 기초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이는 아동의 우울 수준을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인정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7 ~ -.07).

둘째, 또래 불인정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검증 결과를 보면 신뢰구간이 1.22 ~ 2.9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또래의 불인정에 기초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아동의 우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불인정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또래인정육구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의 자아존중감 매개모형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chi^2/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 모형	119.642	69	1.73	.977	.970	.043(.030 ~ .056)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셋째, 또래 인정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12 ~ .79로 0을

포함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인정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4 ~ 2.92). 즉 또래

<표 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효과	경로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직접 효과	또래 인정 → 우울	-.14	.06	-2.97 ~ -.07	
	또래 불인정 → 우울	.17	.06	.75 ~ 3.50	
	또래 인정 → 사회적 유능성	.30	.08	.94 ~ 2.92	
	또래 불인정 → 사회적 유능성	-.17	.08	-2.14 ~ -.18	
간접 효과	또래 인정 → 자존감 → 우울	-.23	.04	-3.36 ~ -1.66	
	또래 불인정 → 자존감 → 우울	.17	.07	1.22 ~ 2.99	
	또래 인정 → 자존감 → 사회적 유능성	.05	.03	-.12 ~ .79	
	또래 불인정 → 자존감 → 사회적 유능성	-.04	.03	-.82 ~ .04	
총효과	또래 인정 → 우울	-.37	.06	-.49 ~ -.23	
	또래 불인정 → 우울	.34	.07	.22 ~ .47	
	또래 인정 → 사회적 유능성	.35	.07	.21 ~ .48	
	또래 불인정 → 사회적 유능성	-.21	.07	-.38 ~ -.09	

인정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없이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래 불인정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82 \sim .04$ 를 포함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불인정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4 \sim -.18$ ).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또래인정욕구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인정욕구가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이 과정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또래인정욕구의 두 차원인 또래 인정과 불인정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또래 인정욕구의 두 차원인 또래 인정과 불인정에 따라 살펴보면 또래 인정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또래 인정에 기초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이는 아동의 우울을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인정에 의해 향상된 자기 가치의 경험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Rodolph et al., 2005)와 일치한다. 즉 사회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기 평가에 통합한 아동은 사건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면은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아존중감이 또래 인정과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에서 또래 인정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또래 인정은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아동의 전반적 자기평가에 또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자존감에 변화가 생기고, 불쾌한 사건은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우울증상을 심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Roberts & Monroe, 1992).

또래 인정에 기반을 둔 긍정적 자기 평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사회적 지지가 대처노력을 강화해 긍정적 심리결과를 만든다는 것으로, Holahan과 그의 동료들(1997)은 사회적 자원이 자존감이나 자기신뢰 같은 감정을 격려하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대처노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김교연, 2007, 재인용). 즉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접근 대처에 영향을 주고 이 대처를 통해 심리적 안녕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불인정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불인정에 기초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전반적 자기 가치감을 특정한

결과나 사건과 연결시키는 일반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화 경향이란 수학을 못하는 것을 전반적인 낮은 지능이나 자기가치감으로 일반화하는 것과 같이(Kernis, Paradise, Whitaker, Wheatman, & Goldman, 2000), 일상의 사건을 모두 자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높은 자아 관련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Greenier et al., 1999).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또래 영향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 불인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Rosenberg(1986)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Rosenberg(1986)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기준선 자아존중감(baseline self-esteem)과 지표적 자아존중감(barometric self-esteem)으로 구분하였다. 기준선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의 항상적 측면으로 순간적 상황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지표적 자아존중감은 상황적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에 해당되는 것으로, 맥락에 기반을 둔 전반적 자기가치감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불안정한 자존감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 등 외적으로 제공된 사건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많은 연구들에서도 불안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와 사랑,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Kernis et al., 2000; Rosenberg, 1986).

또래 불인정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가 결여된 아동에게서 우울이 높고(Messer & Gross, 1995), 또래 불인정에 민감한 아동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걱정하는데 쏟고, 이러한 자기 무시는 정서적 문제에

취약성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Rudolph et al., 2005)와 일치한다.

둘째,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인정욕구의 두 차원인 또래 인정과 불인정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없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또래 인정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 각각의 경로 중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자아개념은 정서와 동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적응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Harter, 1990a),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인지적·신체적으로 유능하며, 또래에게 잘 수용되고 학교 스트레스에 잘 적응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에 자아존중감 수준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여러 학자들(Baumeister et al., 2003; Kernis, 2005)이 주장하는 자아존중감의 어두운 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높은 자존감은 아동의 긍정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Menon et al., 2007). 하지만 아동의 긍정적 발달은 높은 자존감이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인 경우가 많았고(Baumeister, 1998; Leary & Baumeister, 2000),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의 일부는 자기 체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Wentzel, Filisetti, & Looney, 2007). 많은 중단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시간이 경과해도 긍정적 결과를 이끈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Baumeister et al., 2003), 자아존중감은 학업 성취와 긍정적인 관계뿐 아니라 태만적인 행동과 폭력집단 가입 등 부정적인 결과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또한 높지만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적인 발달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Baumeister et al., 1996; Kernis, Grannemann, & Barclay., 1989), 자아존중감 수준은 학교 성취나 적응 행동 같은 객관적인 결과물을 설명하는 강력한 인자가 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Baumeister et al., 200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고 낮음의 수준 뿐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또래 인정욕구, 자아존중감, 우울은 모두 자기보고로 측정된 반면 사회적 유능성은 교사 보고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므로 평가자 영향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아동, 교사, 또래 보고 등의 자료를 함께 고려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또래 불인정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했지만 강력하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불인정에 민감한 아동들은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행동을 보이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억제한다. 또한 자기조절 자원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스트레스 사건이 닦혔을 때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Rudolph et al., 200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능력이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왜곡이나 충동적 행동 억제와 같은 기제를 통해, 또래 불인정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자아의 내적 실행 모델에서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

을 주는 현상학적 매개변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그 기능에 대해 조명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또래 인정욕구가 정서 문제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지지 수준이나 유형을 변화시키는 등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자아존중감과 연결시키는 통제 소재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로 인한 아동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를 추구와 회피 동기에 따라 또래 인정과 불인정으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또래 인정욕구는 두 가지 차원(또래인정, 또래 불인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가 아동의 정서 문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학업 성취도 뿐 아니라 아동의 우울 등 정서 문제에도 동기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 참 고 문 헌

- 김교연(2007). 문제 중심 대처전략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련-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정신지체인의 어머니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3, 5-33.
- 김혜경(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숙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기중(2000). **구조방정식 모형**. 교육, 심리, 사회 연구방법론 총서시리즈, 연구방법 16,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은혜 · 신숙재 · 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6, 175-191.
- 임은정(2005). 학령기 아동의 불안 및 우울과 친구관계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희(2002). 한국판 교사용-아동평정척도(T-CR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5(2), 73-88.
-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 영지문화사.
- 조수철 ·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9(4), 943-956.
- 홍세희(2008).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기초**. 미발간 워크샵 교재.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pp.680-740). New York : McGraw-Hill.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5.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4), *Handbook of self-regulation :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 Guilford Press.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e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06-219.
- Demo, D. H., & Savin-Williams, R. C. (1992). Self-concept stability and change during adolescence. In R. P. Lipka & T. M. Brinthaupt(Eds.), *Self perspectives across the life span*(pp.116-150).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Elliot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 Psychologists*, 34(3), 169-189.
- Elliot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 Approach-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818.
- Fritz, H. L., & Helgeson, V. S. (1998). Distinctions of unmitigated communion from communion : Self-neglect and overinvolvement with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121-140.
- Greener, K. D., Kernis, M. H., McNamara, C. W., Waschull, S. B., Berry, A. J., & Herlocker, C. E., Abend, T. A.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events : Examining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7(1), 185-208.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arter, S. (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Vol.3, pp. 137-18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rter, S. (1990a). Adolescent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pp. 352-387).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90b).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 A life-span perspective. In R. Steinberg & J. Kolligian, Jr.(Eds.), *Com-*

- petence considered*(pp.67-98).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Marold, D. B., & Whitesell, N. R. (1992). Model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1), 167-188.
- Harter, S., & Jackson, B. K. (1993). You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link between low self-worth and depressed affec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4), 383-407.
- Harter, S., Stocker, C., & Robinson, N. S. (1996). The perceived directionality of the link between approval and self-worth : The liabilities of a looking glass self-orientation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3), 285-308.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553-617). New York : Wiley.
- Harter, S., Walter, P., & Whitesell, N. R. (1998). Relational self-worth : Differences in perceived worth as a person across interpersonal context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9(3), 756-766.
- Harter, S. (2005).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M. R. Leary, & J. P. Tangney(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pp.610-642). New York : Guilford Press.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1013-1-22.
- Kernis, M. H. (1993).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167-180). New York : Plenum Press.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ernis, M. H., Paradise, A. W., Whitaker, D. J., Wheatman, S. R., & Goldman, B. N. (2000). Master of one's psychological domain? : Not likely if one's self-esteem is unstab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0), 1297-1305.
- Kovacs, M., Gastonis, C., Paulauska, S., & Richard, C. (1989).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 IV.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anxiety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776-782.
- Kovacs, M., & Goldston, D. (1991). Cognitive and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of depress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3), 388-39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08.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 Sociometer.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32, pp.1-62).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Leary, M. R., & Downs, D. L. (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motive : The self-esteem system as a sociometer.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pp.123-140). New York : Plenum Press.
- Leahy, R. L., & Shirk, S. R. (1985). Social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In R. L. Leah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pp.123-150). New York : Academic Press.
- Leung K., & Lau, S. (1989). Effects of self-concept

-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4), 345-359.
- Mash, E. J., & Wolfe, D. A. (2001). **아동 이상 심리학**. 조현춘 · 송영혜 · 조현재(공역). 서울 : 시스마프레스.
- Menon, M., Tobin, D. D., Corby, B. C., Menon, M., Hodge, Ernest V. E., Perry, D. G. (2007). The developmental costs of high self-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6), 1627-1639.
- Messer, S. C., & Gross, A. M. (1995). Childhood depression and family interaction : A naturalistic observa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77-88.
- Mitchell, J., McCauley, E., Burkner, P. M., & Moss, S. J. (1988). Phenomenology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1), 12-20.
- Roberts, J. E., & Monroe, S. M. (1992). Vulnerable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 Prospective findings comparing three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804-8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t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Vol.3, pp.107-135). Hillsdale, NJ : Erlbaum.
- Rudolph, K. D., Caldwell, M. S., & Conley, C. S. (2005). Need for approval and children's well-being. *Child Development*, 76(2), 309-32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ark, K. D. (2002). **소아기 우울증**. 오수성 · 홍창희 · 이숙자 · 이광섭 · 정정화(공역). 서울 : 하나의학사(1990년 원저발간).
- Strauman, T. J., & Higgins, E. T. (1993). The self construct in social cognition : Past, present, and future. In Segel, Z. V., & Blatt, S(Eds), *The self in emotional distress : Cognitive and psychodynamic perspectives*(pp.3-40). New York : Guilford Press.
- Tanka, J. S. (1987). How big is big enough? Sample size and goodnes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latent variables. *Child Development*, 58(1), 134-146.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 (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5), 2493-2511.
- Wentzel, K. R., Filisetti, L., & Looney, L. (2007).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 The role of self-processes and contextual cues. *Child Development*, 78(3), 895-91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Newbury Park, CA : Sage.
- Wicks-Nelson, R., & Israel, A. C.(2001). **아동기 행동 장애**(제 4판). 정명숙 · 손명숙 · 양혜영 · 정현희 (공역). 서울 : 시그마 프레스(2000년 원저발간).

2009년 8월 31일 투고, 2010년 1월 18일 수정  
2010년 1월 19일 채택